



희망을 붙잡는 아이들 미얀마와 방글라데시가 로힝야족 난민 송환 연기에 대한 책임 공방을 벌이면서 혼란과 긴장감만 키웠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23일(현지시간) 방글라데시 콕스바자르 인근에 있는 난민촌에서 구호 식량을 받기 위해 기다리는 난민 소녀(왼쪽)와 봉사단 현수막 뒤에 숨어있는 소녀의 모습. /연합뉴스

# 로힝야족 난민 송환 다시 '제자리걸음'

### 미얀마·방글라데시 책임 공방 반대 시위자 체포 등 긴장감 안전·시민권 요구 목록부담

신변 안전과 시민권 보장 없이 강행된 로힝야족 난민 송환이 결국 제자리걸음을 하면서, 난민촌에 혼란과 긴장감만 키웠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난민을 수용한 방글라데시는 로힝야족의 '자발적인 송환'을 강조하며 송환 개시 시점을 늦추고, 로힝야족 문제를 국제사회의 거센 비난을 받아온 미얀마는 송환 지연의 책임을 방글라데시에 떠넘기고 있다. 난민촌에서는 송환 찬반 논란 속에 로힝야족 원로가 살해되고 송환 반대 시위

주동자가 체포되는 등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24일 현지 언론과 외신 보도에 따르면 조 틴 미얀마 국제협력장관은 전날 수도 네피도에서 기자들과 만나 방글라데시 측의 일방적인 송환 개시 연기 방침을 비판했다. 그는 "우리는 (난민을) 수용할 준비가 되어 있다. 양국 간 합의에 따라 그들을 환영할 준비가 됐다"며 "방글라데시 측에서 준비가 덜 됐다는 소식을 들었다. 하지만 공식적인 설명은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는 난민들의 자발적인 본국행을 위한 여건이 형성되지 않은 것을 송환 지연의 최대 쟁점으로 제시했던 방글라데시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방글라데시 난민촌에 머무는 로힝야족 난민들은 미얀마 당국이 자신들의 안전과

시민권을 보장해야만 송환에 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농지와 거주지 반환도 요구했다. 로힝야족 반군인 아라칸 로힝야 구원군(ARSA)의 지난 2016년 10월 및 지난해 8월 경찰초소 습격 사건과 미얀마군의 토벌 작전 외중에 끔찍한 학살과 성폭행, 고문 등을 목격하거나 경험한 난민들은 본국행 자체를 꺼리고 있다. 로힝야족이 살던 마을은 모두 불에 탔고 가족과 재산은 약탈의 대상이 됐다. 농지는 미얀마 정부가 수용에 이미 추수를 마친 상태. 따라서 로힝야족은 미얀마에 돌아가더라도 삶의 기반을 다시 마련하는 것이 극히 어렵다. 하지만 미얀마 당국은 돌아온 난민을 임시 수용소에 1~2개월가량 머물게 한

뒤 원래 거주지로 돌려보내려는 계획과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다는 방안만 제시했을 뿐, 난민의 요구사항에 대해 어떤 약속도 하지 않은 상태. 일각에선 미얀마 정부가 분쟁 재발을 막기 위해 송환된 난민을 임시 수용소에 장기간 가둬두고 기본권을 박탈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조속한 송환을 원하지만, 난민과 국제사회의 요구를 묵살할 수 없는 방글라데시, 추가적인 분쟁을 막기 위해 돌아온 난민을 통제하려는 미얀마가 충돌하면서 난민 송환은 진전을 보지 못하는 상황이다. 국제인권단체인 휴먼라이츠워치는 성명을 통해 "방글라데시는 송환 계획을 전면 중단하고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연합뉴스

# 미 고교 청소년 총기난사 2명 사망

### 켄터키주 고등학교서

미국 중동부 켄터키 주의 한 고등학교 교정에서 23일(현지시간) 15세 학생이 총기를 난사해 또래 학생 2명이 숨지고 17명이 부상했다고 CNN·CBS·ABC 등 미 방송이 전했다. 이번 총격은 새해 들어 미국 내에서 사망자가 발생한 첫 학교 총기 사건이라고 ABC 방송이 총기 폭력 사건 자료를 인용해 보도했다. 총격범은 15세 청소년이며 이 학교에 다니는 것으로 알려졌다. 총격범은 현장에서 붙잡혀 패두카 지역 청소년 구치소에 수감됐다. 경찰은 총격범의 신원을 공개하지 않았다. 사건은 이날 오전 8시 50분께 켄터키주 서부 작은 마을인 벤턴에 있는 마셜 카운티 고교에서 일어났다. 수업을 막 시작하려던 순간 교내 공터에서 15세 소년 1명이 권총을 발사했다. 권총을 들고 교내로 들어온 총격범은 무차별적으로 총을 쏘아댄 것으로 알려졌다. 총성이 들리자 학생 수십 명이 뒤엉켜 달아났다.

한 학생은 CNN에 "총성이 들리고 체육관으로 뛰어 들어갔다. 다른 아이들도 가방을 버리고 도망쳤다. 체육관에서 엄마에게 데리러 와달라고 전화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12명이 총에 맞았다고 말했다. 매트 베빈 켄터키 주 지사는 트위터에 "충격적인 비극이다. 이런 사건이 마셜 카운티처럼 자그마하고 이웃끼리 가까운 공동체에서 일어났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사건이 일어난 벤턴 지역은 인구 5000여 명이 불과한 작은 마을이다. 마셜 카운티 고교에서 차로 30분 정도 떨어진 켄터키주 패두카 보건 고교에서는 지난 1997년 10대 학생이 총기를 난사해 3명이 숨지는 사건이 있었다. 앞서 전날 오전에는 텍사스주 델러스에서 남쪽으로 80km 떨어진 작은 마을인 이탈리아 고등학교 카페테리아에서 16세 소년 1명이 총을 쏘아 15세 여학생이 다쳤다. 지난달에는 뉴멕시코주 나바호 원주민 지구에 있는 아스텍 고등학교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학생 2명이 숨지고 10여 명이 다쳤다. /연합뉴스

# "낙타도 미모 뽐내러 보톡스 시술"

### 사우디 '낙타 경연대회' 과열 양상



사우디아라비아 '낙타 미모 경연대회'에 참가한 낙타들. /연합뉴스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열리고 있는 '낙타 미모 경연대회'가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 23일 미국 시사지 뉴스위크에 따르면 매년 사우디 수도 리야드에서 동쪽으로 약 160km 떨어진 사막에서 진행되는 이 대회가 올해는 '보톡스 스캔들'에 휩싸였다. 이 대회에 참가한 낙타 12마리가 입술 부위에 보톡스 시술을 했다는 의혹을 받으며 탈락한 것. 사우디에서는 해마다 사막의 유목민인 베두인족을 상징하는 낙타를 기념·축하하기 위해 이러한 행사가 열렸다.

그러나 거액의 상금을 타려고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면서 문제가 생겼다. 전체 상금은 5700만 달러(약 611억원)에 달한다. 또 심사단이 얼굴과 외모 중심으로 미의 기준을 판단하면서 결국 '낙타 성형' 스캔들까지 터졌다. 한 달간 진행되는 경연에는 대략 낙타 3만 마리가 경쟁한다. 아버지가 낙타를 키운다는 알리 알 마즈루이(31)는 "행사 참가자들은 낙타의 뒷발과 아랫입술, 코, 심지어 턱에도 보톡스 시술을 한다"고 아랍에미리트(UAE) 매체 '더 내셔널'에 말했다. /연합뉴스

# 미 CIA 국장 "북핵 전시용 아니다"

마이크 폼페이오(사진) 미국 중앙정보국(CIA) 국장은 23일(현지시간)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배경에 대해 '전시용'이 아닌 미국 타격 및 대남 무력 통일을 위한 용도로 진단했다. 폼페이오 국장은 이날 미 싱크탱크인 미국기업연구소(AEI) 주최 강연에서 "북한이 (핵·미사일 개발에) 매우 빠른 속도로 움직여 왔다. 북한의 시험능력이 향상되고 성공률이 더 높아져 미국의 위협이 한층 더 가까워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폼페이오 국장은 김정은을 '이성적'(rational)이라고 진단하면서 그렇다고 해서 그가 핵무기를 단지 체제 방어용이 아니라,

한반도 통일까지 염두에 둔 '강압적'(coercive) 용도로 사용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그는 "김정은이 단 한 번의 성공적인 실험에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한 뒤 "논리적인 다음 단계는 무기 개발"이라고 지적했다. 폼페이오 국장은 "김정은이 원하는 것은) 동시에 여러 미사일을 발사하는 능력"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은 절대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법을 찾으라고 정부에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 중국 인권변호사 잇단 자격 박탈

인권운동가를 변호하고 사회적 약자를 대변한 중국 변호사들이 잇따라 자격을 박탈당했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24일 보도했다. SCMP에 따르면 광둥성 광저우시에 사는 수이무칭 변호사는 22일 사법당국으로부터 만나자는 전화를 받았다. 다음날 당국을 찾은 그에게 주어진 것은 변호사 자격을 박탈한다는 내용의 서류였다. 수이무칭 변호사는 다른 변호사들이 말기를 꺼리는 중국 내 인권운동가의 변호를 수차례 맡은 경력이 있다. 그가 맡은 인권운동가 중에는 중국의 정치 개혁을 위해 공직자의 재산을 공개하

자는 '신(新)공민 운동'을 펼치다 구속된 당자시 등이 있다. 사법당국은 그가 변호사법을 위반하고 변호사와 법률회사가 지켜야 할 행동강령을 어겨 변호사 자격을 박탈한다고 통보했다. 당국은 지난 2014년 수이무칭이 변호를 맡은 고객이 재판을 받던 도중 법정에서 소란을 피웠으며, 지난해 쓰촨성의 한 경찰서에서 고객을 만나던 도중 그가 마음대로 사진을 찍었다는 이유 등을 들었다. 지난주에도 사회적 약자를 대변했던 위윈성 변호사가 구금된 후 변호사 자격을 박탈당했다. /연합뉴스

## 평택시 토지분양 (오픈)

- ▶ 삼성전자 - 120만평
- ▶ LG전자 - 110만평
- ▶ 송탄역/진위역 5분
- ▶ 미군기지
- ▶ 평택 항
- ▶ 고덕신도시 520만평

**총 7필 지 분양**

**건축 허가완료 토목·도로공사완료**

1필지(약 200평)

★ **평당 200만** ↘

**할인 130만**

**(기타 평택 투자물건)**

- 1) 평택시 신장동 (77평) (고덕신도시 5분, 송탄역 5분) 매가 4억
- 2) 평택시 고덕면 해창리 (253평) 매가 6억
- 3) 평택시 서정동 (59평) 매가 9억 (건축허가 완료)
- 4) 평택시 지산동 (1,350만) 매가 27억5천만
- 5) 화성시 남양읍 신남리 (공장부지) 2,500평 매가 16억5천 (공장 최고 개발부지) (마도산업단지 내)

**010-6670-9800    010-7384-7800**

## 영광주택 매매

### 전원주택(영광읍) 광주에서 30분

즉시입주 가능  
최근리모델링 완료

토지 151평  
건물 42평  
(32평 아파트형, 창고 17평)

시세가 **1억 2천**  
매가 **9천 4백**

직거래 **010-6670-9800**

## 경매교육

- 1) 이론 실전반
  - ▶ 매주개강 (오전반, 오후반) 기초이론 + 실전
- 2) 실전 투자반
  - ▶ 매주개강 (오전반, 오후반) 경매기초 + 실전경매+실전투자
- 3) 경매 평생반
  - ▶ 매주개강 (오전반, 오후반) (특수경매, NPL부실채권) 바로 수익창출 하실분 입찰부터 매매임대, 개찰까지 원스톱 진행

**경매물건 추천**

- 1) 북구 신원동 오피스텔(24평) 24평 1억3천3백 → 최저가 9천3백
- 2) 북구 일곡동 현대아파트(24평) 24평 1억4천2백 → 최저가 9천9백
- 3) 서구 생촌동 광명하이츠 (상가) 5천3백 → 최저 2천9백

[ 사무직 (여)경력 구함, 경매 부동산 관심자 환영 ]

**010-6670-9800**

## 법률 경매 (주)대신경매

- 1) 서구 내방동 (건물) 토지:80평 건물:114평 감정:3억6천 → 최저:3억6천
- 2) 남구 행암동 (1층상가) 효천 대단위 아파트 (주차빌딩) 감정:1억4천4백 → 최저:1억4천4백
- 3) 광산구 수원지구 (원룸빌딩) 감정:7억2천 → 최저:7억2천
- 4) 나주 성북동 (근린주택) 감정:32억 6천 → 최저:18억 2천
- 5) 광산구 수원동 (1층 상가) 감정:9억6천 → 최저:6억7천
- 6) 남구 양림동 (주택) 감정:2억6천 7백 → 최저:1억8천7백
- 7) 전북 군산시 평화동 (근린상가) 감정:12억1천 → 최저:4억1천
- 8) 화순군 남면 사평리 (주유소) 감정:5억 → 최저:3억8천
- 9) 화순 도곡면 천암리 (무인텔) 감정:37억4천 → 최저:20억
- 10) 북구 용봉동 (12층중 7층) 감정:6억5천 → 최저:2억3천
- 11) 북구 신안동 (주유소) 토지:232평 건물:114평 감정:14억5천 → 최저:14억5천

**A.P.T · 주택 · 공장 · 토지 (기타)**

- 1) 남구 진원동 한신 아파트 (31평) 감정 2억1천2백 → 최저 1억4천8백
- 2) 서구 풍암동 금호타운 감정 1억9천 → 최저 1억 3천
- 3) 서구 풍암동 동부센트레빌아파트(36평) 감정 2억9천 → 최저2억
- 4) 서구 유촌동 버들주공 아파트 (24평) 감정 2억 → 최저 1억 4천
- 5) 북구 운암산코아루렉시안 (34평) 감정 2억5천 → 최저 1억 7천
- 6) 상무지구 갤러리 아파트 (75평) 감정 5억8백 → 최저 3억6천
- 7) 광산구 수원동 대방노블랜드아파트(56평) 감정 4억5천8백 → 최저 4억5천8백
- 8) 서구 마북동 (주택) 감정 1억3천 → 최저 9천1백
- 9) 북구 양산동 (공장) 감정 39억 → 최저 14억
- 10) 화순군 능주면 잠정리(대지) 감정 7백 → 최저 5백
- 11) 무안군 망운면 피서리(숙박,콘도) 감정 11억4천5백 → 최저 7천6백
- 12) 전남 영암군 삼호읍(공장) 감정 14억8천 → 최저5억3천

**010-6670-9800    010-7384-7800**